



## 최후의 5분이 중요하다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양돈가족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90년은 양돈업계와 협회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변혁기를 맞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1945년 2차대전 종결과 함께 유지해 온 알타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는 시작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개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동구권을 비롯하여 적성국가였던 소련과 국가가 정상화 되고, 중국과도 무역대표부가 설립되는 등 이러한 큰 일들이 '90년 한 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EC가 통합을 결의하였고, 중동지역이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 힘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으며, 극동아시아 지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3당통합, 남북교류 등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질서 재편에 따라 경제 질서의 재편도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UR협상이 금년 1월로 넘어오긴 하였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가 신발이나 스웨터 등을 팔아 쇠고기와 바나나, 자몽을 사다 먹는 구조로 재편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90년엔 돼지고기도 일부 수입되었고, 칠면조고기와 소세지도 수입이 시작되었으며, 쇠고기는 거의 10만t에 육박하였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분유도 부족해서 수입할 것이라고 하며, 양(羊)의 해인 금년엔 양고기도 수입이 개방되었고, 아직 개방이 안된 품목은 3월 1일 개방일정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산업의 사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포도주를 곁들여 먹어야 제 격인데, 현재 30%인 포도주 관세를 매년 5%씩 인하해서 93년엔 15%로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소주도 전국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영국의 요청

**국내의 여건은 빠른 흐름속에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승자는 최후의5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쪽이다.” 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양돈산업도 끝까지 노력 하면 살아남고 발전하여 국제 경쟁에서 승리 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위스키의 관세도 대폭 내린다고 하니 체질과 기호에 따라 술과 안주를 골라 주지육림(酒池肉林) 속에서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UR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농산물 15개 품목은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분야를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농촌은 지키겠다고 하는 데도 할복·단식으로 농민들이 대처하였는데, 금년에 들어와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달라져 양축농가들은 얼떨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통상협상 대표들이 계속 서울에 오고, 조순 전부총리가 미국에 다녀오고, 연말개각에서 모든 경제 각료는 유임되는데 유독 UR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상공부장관만 퇴진하고, 후임에는 미국을 잘 아는 미국통이 부임되는 등 무언가 새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곧이어 UR협상 대책을 수정하겠다는 보도와 15개 농축산물의 대부분이 관세 하나로 보호조치를 하고 1~2개 품목만을 사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농촌구조조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축산발전장기대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마사회를 비롯한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등 12가지가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축산법, 낙진법 등 축산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돈산업은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관세, 부가세 등), 배합사료 공급체계 등 제도적 개선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지원 등의 정부지원과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업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란서의 사관학교에서 교관이 양쪽 군대의 전력과 지형이 비슷할 때 전투의 승패를 가리는 요인이 무엇 이냐고 묻자 모두들 그날의 병사들 사기에 달렸다고 대답했으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만은 최후의 5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쪽이 승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양돈산업은 살아남고 발전하여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민자당의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이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축산업계에서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무장을 해제하고 쉬고 있을때, 체육부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하므로써 마사회가 체육부로 이관토록 결정 된 바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해결해야 할 축산업계의 많은 문제들을 최후의 5분까지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